

“자리 다툼에 수준 이하 질의” 광주시의회 ‘부끄러운 민낯’



‘감투 싸움’으로 9일 동안의 파행과 공전 끝에 가까스로 원구성을 마치고 정상화된 광주시의회가 이번엔 수준 이하의 질의에 심지어 민원성 질문으로 초선 중심 시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사전연구로 날카로운 지적과 공중선에 입각한 대안 제시도 이뤄지긴 했으나 합당 미달의 질의가 연일 터지면서 민의의 전달로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의회가 맞을 울리자 마자 난파선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 사용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K의원은 예상을 뒤집은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자치행정국장인 “중개수수료는 0.4%에 부가세 포함, 148만원이 지출됐다”고 답하자

K의원은 메모지에 자필로 기록한 뒤 “이것을 놓친 게 한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동료 의원과 일부 참석자는 웃음을 터트렸으나, 주무 부서 국장과 과장 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표정은 일순 굳어졌다.

한 술 더떠 K의원은 “3억2000만

“숨겨진 공유재산을 찾거나 낮게 부과된 임대료 등을 정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운영팀 위원장의 발언에 “당황스럽다”며 임대료 문제를 거듭 제기한 뒤 “좀 더 부드러운 행장”을 주문했다.

다른 자치단체나 광주시 소유 다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현황이나 폭리 여부, 특혜성 임대 여부 무리한 감사 여부 등에 대한 촘촘한 준비나 질의 집행부를 쫓아내며 하는 예리한 지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의원이 시민의 부여한 자리에서 개인 하소연을 한 셈이다.

집행부로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묘한 상황’임을 직감한 윤 위원장은 “(의원님 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별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순발력(?)을 발휘했고 이에 K의원은 밝은 표정으로 “감사합니다”며 질의를 마쳤다.

20일 환경복지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수도물 및 여유수를 담은 페트병의 반환경적 문제, 과다생산 등에 대한 지적과 페트병 재활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와중에 모 의원이 난데없이 과다 협찬에 따른 수도물 낭비 문제를 지적해 본질에서 어긋난 질의의 아니냐는 곱잖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일부 의원은 12년 전 기초의원 시절 겪은 자치구 행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가 모두 개선된 사실을 알고 뻔뻔해 하는가 하면 기본 현황이나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즉흥적으로 질의하는 경우도 곳곳에서 노출돼 정가와 관가 안팎에서 “격정이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유사 중복조례 상정을 지적하며 “내부 협치와 소통 부족”을 질타하는가 하면 시장관사 비품비용 회계처리 적정성, ‘도로 위 폭탄’으로 불리는 싱크홀 발생 현황을 근거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돋보였다.

김동찬 의원은 “전체 의원 23명 중 무려 20명이 초선이고 그 중 상당수는 기초의회 경험도 없어 이제 차근차근 배워 가는 과정”이라며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연찬회나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8대 의회 수준을 서둘러 끌어올리는데 올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공인중개사 의원 “시장 관사 수수료 놓쳐 한스럽다” 시 산하기관 임주모 의원 “임대료 비싸” 공개 민원 페트병 환경 문제 논의하는데 ‘과다 협찬’ 언급 당혹

22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4명의 상임위원장 가운데 한 명인 K의원은 지난 19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장 관사 문제에 대한 추가 질문을 통해 “이용십 시장이 3억2000만원에 관사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동산 수수료는 몇 퍼센트로 계산해서 얼마였냐”고 물었다. “제가 공인중개사입니다만 얼른 계산이 안돼서”라고 친절하게 본업도 밝혔다.

앞서 질의한 동료 의원이 비품 등 기타 비용 회계처리에 대해 예리하게 캐묻고 쫓붙형질 이후 “법과 제도 못잡게 시민 정서가 중요해졌다”고 밝힌 집행부 참석자들로부터 “실무진들이 안이했던 것 같다”는 공감대를 끌어낸 터라 추가로 관

원이면 부담스런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까지 철회·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이 시장을 “선의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관사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설명해 “문제의식이 부족했다”는 이 시장의 고백과 동료 의원의 문제제기를 한꺼번에 뒤집기도 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의회 지도부에 속한 K의원이 ‘민원성 질의’로 도마에 올랐다.

시 소유 공유재산 건물 1층에 위탁 카페와 개인회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K의원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도중 “임대료가 너무 비싸 공실이 늘고 있다. 우리 사무실도 예외가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민주 전당대회’ 대진표 확정...이해찬 등 8명 당대표 도전

최고위원에는 8명 출마...26일 컷오프 당대표만 실시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출마자			
 이해찬 1952년, 충남 청양 7선(세종서울 권역) 전 국무총리	 이종걸 1957년, 서울 5선(인양 만안)	 김진표 1947년, 경기수원 4선(수원 영통) 전 재정경제부장관	 송영길 1963년, 전남 고흥 4선(인천 계양) 전 인천시장
 최재성 1965년, 경기 가평 4선(남양주시용 송파울)	 이인영 1964년, 충북 충주 3선(서울 구로갑)	 박범계 1963년, 충북 영동 재선(대전 서구울)	 김두관 1959년, 경남 남해 초선(경기 김포갑) 전 경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6 전당대회를 앞두고 21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후보군을 좁히기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

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당대표에 총 8명, 최고위원에 총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1명)와 최고위원(5명)을 따로 선출한다.

당대표 후보는 7선의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5선), 김진표·송영길·최재성(이상 4선),

이인영(3선), 박범계(재선), 김두관(초선) 의원 등 8명이다.

‘친노·친문 좌장’으로 불리며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꼽히던 이해찬 의원이 전날 장고 끝에 당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당권 경쟁 판도는 크게 흔들렸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4선의 설훈 의원을 비롯한 유승희(3선), 박광온·남인순(재선), 박정·김해영·박주민(초선) 의원과 황명선·노산시장 등 8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선출직 당직자,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중앙위원회에 참가하는 48여명을 대상으로 컷오프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당대표는 3명으로 압축된다. 반면 최고위원은 컷오프 없이 전당대회에서 본선거를 치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시행세칙에 따라 최고위원 컷오프는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실시하는 만큼 26일에는 당대표 컷오프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스

김병준 비대위, 한국당 계과 갈등 잠재울 수 있을까

현역 당협 물갈이 카드 꺼낼시 계과 갈등 재현 농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가 당내 고질적인 계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대위 출범 초기인 데다 양 진영 간 합의로 비대위가 들어선 만큼 당분간은 계과 갈등이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방선거 참패 직후 의총마다 계과 간 고성으로 접철되고 네 탓 공방만 벌어왔던 것과 달리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임차로 결정된 후, 계과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지는 듯한 모양새다.

아무래도 출범 초기이고 비대위 기간이나 성격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기에 선불리 비판하기보다는 ‘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이 양 진영에 민감한 공천권 행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의원 개개인 의 ‘출마’와 관련해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아 안심하는 눈치다.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원에게 가장 예민한 것이 공천권이고,

김 위원장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김 위원장이 공천권 대신 차후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암시하며 실권 행사를 예고했지만, 이 역시도 현역의원이 속한 당협이 아닌 흥준표 체제 당시 물갈이 된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위원장은 19일 당협위원장 교체와 관련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당분간 당협위원장 교체는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 자체가 친박과 비박 진영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산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문제가 될 지점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지명될 정도로 친박 진영과 직간접적으로 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이 사실상 비박 진영보다 친박 진영에 인간적인 접촉면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울러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

되고 추진까지 이끈 것은 비박 진영이었기에 양 진영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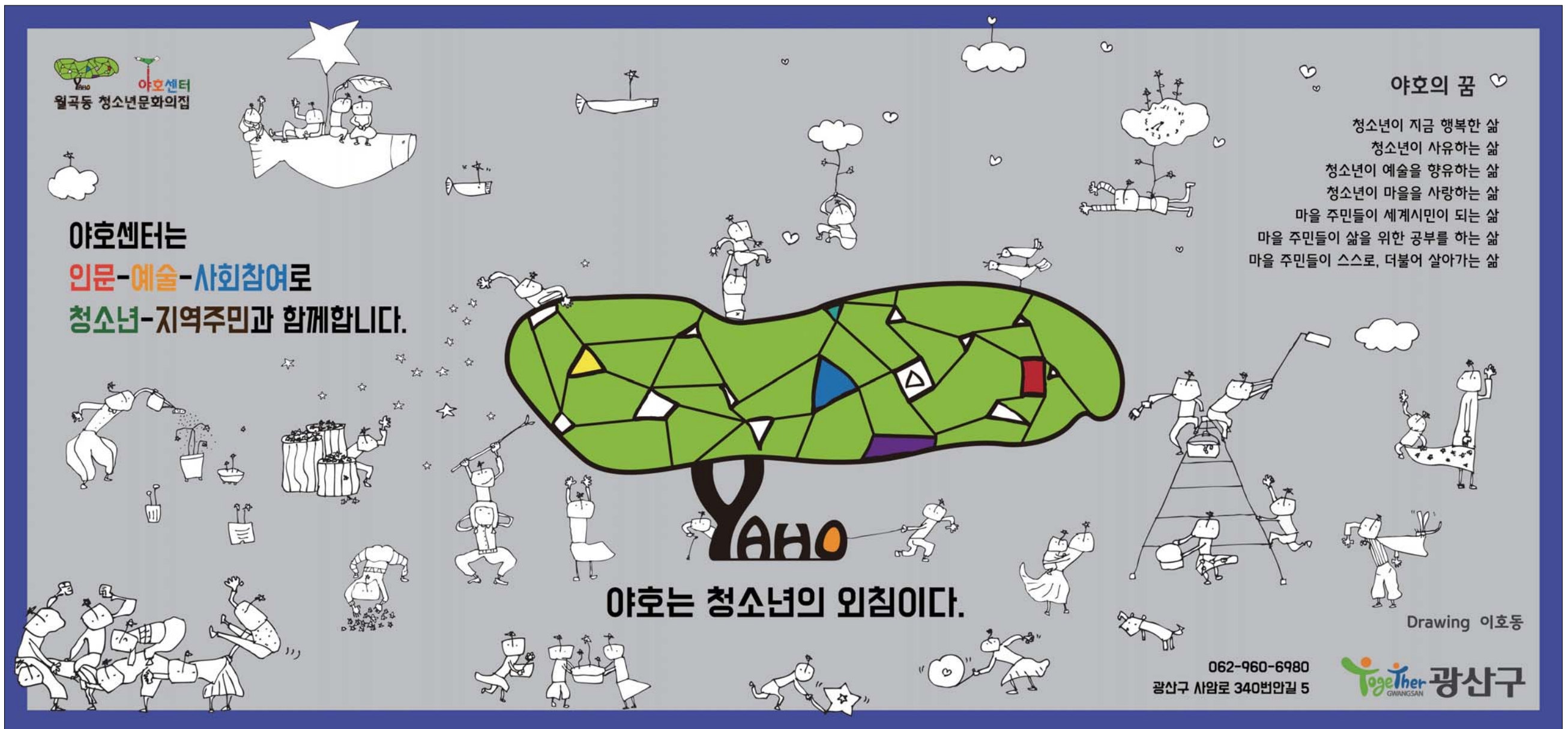
이에 따라 내주까지 완료할 비대위 선인 역시 양 진영 계과를 아우르며 인선 작업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김 위원장이 이후 강력한 당협위원장 물갈이 카드를 꺼내기 시작한다면 그때 또 다시 계과 갈등의 분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관측이다.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당협을 정리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역 의원의 당협을 갈아치우려는 건지는 분명치 않지만 후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바로 국회의원들의 지역이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스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